

제18차 평생교육심포지움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21세기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한준상/연세대학교 교수

학교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이희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성인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기영화/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韓駿相

(연세대 교수, 교육대학원장)

인간은 배우는 동물이다. 이런 학습인간을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라고 부른다. 호모 에루디티오는 배움을 통해 자기의 삶을 개조해나가는 사람들이다. 학습인은 그냥 배우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한가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자기와 사회를 완성해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학습인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어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인”이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결속과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가능성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며, 경제적으로는 끊임없이 일과 자신을 조화시킴으로써 “평생고용”을 실천해가는 생산인이다.¹⁾

학습인을 가리켜 가능성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중국의 주자(朱子)가 논하는 식의 공부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주자(朱子)에게 있어서 공부, 즉 배움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 근본이다. 위기지학은 위인지학(爲人之學)과 대비된다. 위인지학이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명예나 권력 등의 부차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공부인데 반해, 위기지학은 철저히 자신의 본성 혹은 본질을 삶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행위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의 고유한 본성 혹은 본질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²⁾

주자의 공부론적 인간관과는 달리, 우리가 말하는 “호모 에루디티오”는 자기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학습의 본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사회적으로 환원해내는 일까지를 완성해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자기 스스로 배우며,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노력은 학습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호모 에루디티오로서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일과 삶과, 그리고 땅을 일구어나가는 지혜로 매일같이 경작했던 것처럼, 지혜의 받고랑을 일구어 나가며 매일 매일을 부지런히 준비해나가며 그 추수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풍요와 번영을 실현 내가는 사람들과 흡사하다.³⁾

인간에게 있어서 배우는 일은 인간과 보통의 생물 사에서 보여주는 생존방식을 크게 구별시켜 주는 기준이기도하다. 인간은 일반 동물과 달리 개인적으로 각기 자기그릇에 합당한 학습정신과 학습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학습능력은 인간의 존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업성을 지켜주는 인간 특유의 본성에 속한다. 원숭이와 사람간의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차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학습 본능의 실현정도로 판단한다. 인간 스스로 인위적으로 학습능력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그 스스로 인간정신을 구성하는 학습능력을 자연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 무엇인가 탐구하려는 인간 본연의 “발견의 열정”과, 탐구한 그것을 실생활에 응용해보고 그것의 효능이나 결과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공유해보려는 “설득의 열정”으로서의 학습본능을 자연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학습본능을 인위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사람에 비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부터 사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배움의 우선성

인간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일이 배우는 일과 무관할 수는 없다. 물론 가르침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배우게 만들어 주는 계기를 마련 해 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르침은 인간의 지적인 발달단계과정상 아동기라는 일정기간에 걸쳐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도 있다. 그런 아동기라는 일정기간동안 가르침의 효과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르침보다는 배움이 삶을이를 좌우한다.

아무리 가르침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가르침을 받기 전에 배우기부터 먼저 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이다. 배움이 가르침보다 앞선다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두뇌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학습은 뇌의 신경세포가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활발하게 작동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뇌 기능이 다른 두뇌구조를 갖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두뇌가 전개하는 학습활동은 다른 동물과는 상당히 질적으로 다르다 점은 인간의 학습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르침이 배움에 우선한다는 그 동안의 주장을 역전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구석구석을 짚어 보면, 인간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없이 확인하게된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가르침이 인간 노릇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만 그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제대로 사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사람 스스로 제 할 것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노릇을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가르쳤기 때문에 꼭 배웠(은)다고 볼 수도 없다. 인간이 무엇인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흠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르쳤는데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배우는 동물에게는 하나의 흠처럼 남겨진다. 그런 흠을 능력부족으로 표현하던, 혹은 학습결손으로 지칭하던 간에 관계없이,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가르치면 당연히

익혔(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학습능력을 가르침의 결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교교육이다. 학생들의 성적은 바로 그렇게 판가름한 제도적인 산물이다. 학생들의 운명은 바로 그 성적순에 의해 결판난다. 학생들은 그 성적순대로 일류대학, 이류대학으로 갈라져 진학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운명과 출세가 확정된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진출과 사회적인 운명이 성적 순으로 결판나는 사회를 바로 학력사회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평생학습사회는 교육이념에 있어서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과시즘(edufascism)”을 거부한다.⁴⁾ 또한 학교와 가르치는 사람들의 학습독점주의를 거부한다. 동시에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라는 학교교육 식의 공부론을 거부한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이고도 무의식적이며, 우리의 행위에 대해 무한한 반추와 성찰을 요구하는 학습의 상징이나 혹은 학습의 패턴에 대해 매일같이 의지하게 된다.

학력사회의 벽을 넘으려면. 가르치는 일보다 배우는 일이 우선하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잘 외우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무슨 능력을 어느 정도로 보여줄 수 있으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로 실현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이다. 모든 시민에게 배움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회가 모든 이를 위한 사회이다. 동시에, 인간은 배울 수 있다는 식의 당위적인 이야기를 넘어, 이제는 성인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요청되는 배움 일감과 배우는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개별화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학습내용의 개인화와 학습방법의 개별화를 촉진시켜주는 일이 지역사회단위별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지역사회별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기관들은 "학습클리닉(learning clinics)"으로 전문화 해야한다.

학력사회의 벽을 넘어서

한국인의 교육관을 이루고 있는 고질적인 교육적 유산은 바로 학력주의이다. 한국인의 꿈은 학력을 통해 사회적인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간추려져왔다. 그래서 한국인의 모든 노력은 출세하는 자녀교육으로 집중되어 왔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열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보통시민의 한달 가계비의 40%가 자녀 출세를 위한 사교육에 탕진되고 있는 것도 모두 한국인의 꿈을 쫓아가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이런 노력과는 달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충실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속편한 소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공교육을 위해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을 공교육에 투입한다고 해도, 그것의 효과는 끝내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학력주의의 젓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 다시 말해서 공교육이 일류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으로 일관하는 한, 공교육의 잠재적 기능은 몇몇의 출세를 위한 선발기관의 노릇이나 할 뿐이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공교육은 “모든 이를 위한 학습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보다는 소수의 사회적 출세보장을 위한 가르침의 교육으로 종결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란 명분아래 지금까지 공교육재정을 무작정 쏟아 붓는 것은, 마치 지금과 같이 실패할 대로 실패한 재벌과 실패한 금융업을 살려낸다는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치밀한 계획 없이 낭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된다면, 수십 조원의 국민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전용하지만, 끝내 그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현상처럼 공교육 역시 별다른 효과 없이 매년 그 모양, 그 모습을 지탱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꿈꾸어 왔던 학력주의의 실현은 한때 가난한 우리 국민에게도 하나의 꿈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이 없을찌라도 열심히 가르침만 받으면 서울의 대학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 없으면 국가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변변한 교육방송 과외마저 받아보기 어려운 시절로 세상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출세가 금력과 학력으로 결정되는 사회를 우리는 “출세의 교육적 고착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점은 사회경제의 구조가 자본주의 이념에 의해 정착되어 감에 따라 더욱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학부모들 두고 있는 학생들의 사회 이동은 거의 힘들게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벌이 하나의 카스트처럼 개인의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이번 2000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사했을 때도 예외없이 하나의 사실로 포착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00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를 본사가 올해 통계청이 발간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통계연보'와 각각 비교, 분석한 문화일보는 서울대 입학생의 학부모가 고급 관리직 종사자일 경우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서울대에 보낼 가능성은 생산직 노동자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 신입생중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평균의 1/16도 안되었으며, 서울지역 출신 학생이 서울대로 진학하는 경우는 중소도시나 읍·면 출신자의 네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4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명문대생 아버지의 직업분포는 ▲관리직 26.6% ▲전문직 23.2%로 각각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9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경제활동 인구(1288만 9000명)의 직업분포는 ▲관리직 3.6% ▲전문직 5.5%에 불과해 이들 직종이 전체 평균에 비해 각각 ▲7.38배 ▲4.22배나 더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대생 아버지의 직업중 ▲생산직 노동자는 9.3%(전체평균 38.6%) ▲농·어·민은 3.5%(전체평균 9.3%) ▲미취업자는 4.7%(전체평균 7.1%) ▲중·하급 사무직은 16.9%(전체평균 21.1%)에 그쳐, 이들 직종의 자녀가 직업분포 평균에 비해 각각 대략 ▲1/4 ▲2/5 ▲3/5 ▲4/5만 서울대에 진학하고 있었다. 판매·서비스직은

서울대생 아버지의 점유율이 15.8%로,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직업 점유율(14.8%)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계층의식과 관련, 통계청의 99년 전국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는 ▲상류층 1.1% ▲중류층 54.9% ▲하류층 44.0%로 응답했다. 반면 서울대 신입생들은 계층의식이 ▲상류층 0.5% ▲중류 96.8% ▲하류 2.7%로 나타나, 중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국민 전체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하류층은 1/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지역의 경우 서울대 신입생은 ▲서울지역 45.2%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 31.0% ▲지방 중소도시·읍면 23.2%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교육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전국 고교졸업자(76만4712명)중 서울지역 출신은 22.9%에 불과해, 서울지역 출신자가 서울대에 진학하는 비율은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읍면 출신은 48.6%를 차지했으나 서울대에 진학하는 비율은 절반도 채 못 미쳤다. 6대 광역시 출신자의 서울대 진학비율은 31.0%로 전체 졸업생비율(28.5%)과 2.5%p의 차이만을 나타냈다⁵⁾.

배움과 궁리의 연결고리: 의미찾기

배우는 일은 무엇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궁리(窮理)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배우는 일은 개인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 줄거리가 비슷하다. 삶의 이야기에 있어서 어느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이야기는 나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기에, 오히려 나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 그렇고 듣기에도 좋다.⁶⁾ 배움과 학습은 바로 그 지점에서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다. 학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려가듯이 삶에 관한 이색 저색을 자기 성찰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맞대로 그려 가는 행위인 것이다.⁷⁾

그래서 배움은 사람이 사고(思考)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지칭하게 된다. 인간의 학습이 그의 생각과 곧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 혹은 더디게 연결되기도 하는 것은 배움과 궁리 사이에 매개개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의미”라는 개념이다. 의미 캐기 혹은 의미 찾기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의미라는 개념은 삶이나 배움의 형태와 형질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을 통해 의미를 찾을(았)때, 그것을 우리는 생각했다고 하거나 배웠다고 표현하곤 한다.

결국,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배움과 사고를 하나로 만드는 매개개념은 첫째는 “의미라는 요인”과 그 둘째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된다. 의미와 의미의 중요성을 인간의 삶과 관련시킬 때, 그것의 전체모습을 학습의 의미심장(意味深長)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배우는 활동이 생각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뇌가 의미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맡아 주어야 한다. 학습자의 뇌에 입력되는 정보

■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들이 학습자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그 학습자에게 심각한 것인가에 따라, 그 정보에 대한 두뇌의 작용은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해서 100만원을 벌게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외가 접했을 때와, 잉크를 다 써 버린 볼펜을 쓰레기 통 가운데 그중 어느 쓰레기 통에 버려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접했을 때, 정보를 접하는 학습자의 태도나 각 기의 정보가 갖고 있는 의미의 심장성은 사뭇 서로 다르게 된다.

결국, 의미심장의 요소에서 그것을 결정해주는 그 첫째 요소는 정보의 “의미” 파악의 문제이다. 그 어떤 정보이든 개인 학습자가 받아들인 정보는 그 정보가 학습자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정보의 생명력이 좌우된다. 왜냐하면, 인간경험의 세계는 사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들로 구성되기에, 학습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와 닿는 것은 그가 경험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하는 문제이다. 한 사건의 의미는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부경험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에게 우선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맥락이다. 즉, 자기와 한 사건간의 관계가 어떻게 엮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가 그에게 우선하게 된다.

학습지역공동체 건설: 고대 그리스 아고라의 교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놀이터이고, 삶의 터이며, 번식의 터이다. 인간교육의 시작은 원래 지금처럼 학교교육이 아니었다. 학교라는 기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판에 박은 듯이 가르치는 그런 지식훈련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먼 훗날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잡다한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을 오랜 기간동안 가르치고 외우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니었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서 한 쪽은 가르치기만 하고 다른 한 쪽은 배우기만 하는 그런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교육은 생업에 종사하는 한 지역의 공동체구성원들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의식소통의 활동이었다.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신적이거나 기술적인 이것저것을 주고받고, 그것을 통해 각자의 삶을 더 한층 의미 있게 만드는 인간(Andra)들의 정신적이고도 사회적인 평생공동체형성을 위한 개조작업이 교육이었다. 삶의 시작과 삶의 끝에 이르기까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즐기며,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도록 만드는 인간 삶의 작업이 바로 안드라고지(Andragogy)의 원리였다.⁸⁾ 안드라고지는 지금과 같은 식의 학교만능주의, 즉 페다고지(Pedagogy)를 거부하고 인간본성 그대로의 학습자율주의를 지향한다

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에게 하나의 학습터였다는 증거는 고대 사회에서 수없이 발견된다. 그런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라는 학습공동체였다. 아고라(Agora)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있어서 지역교육공동체의 상

장이었다. 아테네 같은 민주주의 국가든, 스파르타 같은 과두정치 국가든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에는 하나의 아고라가 있었다. 헬레니즘의 시대에서도 이 아고라는 그리스 지역공동체의 평생학습 터가 되었었다. 원래 아고라에는 개인의 집을 지을 수 없었으며 사유지와 이점표로 분리되어 있었다. 아고라는 성소나 교통 중심지 옆에 자리한, 거의 비어있는 공공장소였지만 그렇다고 광장같이 텅 빈 공간은 아니었다. 아고라는 로마의 포럼이나 현대의 광장과는 다르게 그리스 공동체가 중시하는 종교, 정치, 경제의 세 가지 기능을 다 함께 발휘했다. 아고라 주위를 둘러싸고 발전된 신전과 각종 예배소, 민회의 장소, 평의회 실, 법원 등과 같은 장소들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기들의 경험을 서로에게 나누며 서로를 즐기자 아고라에는 상점들도 드러 섰다. 상점들은 ‘동물의 가죽이나 버들가지로 엮은 망을 덮은 천막이과 같이 고정되지 않은 구조물들이었다.

아고라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시장이기 이전에 종교적, 정치적 장소였으며 학습의 중심지였다. 시민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개인적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고라를 찾았다. 아고라는 시민의 대화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고라는 단지 정보를 얻고, 잡담을 하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정치적 토론과 정치적으로 학습의 장이기도 했다. 웅변가들은 청중을 끌어 모으고 싶으면 아고라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기울이도록 만들었다.

물론, 아고라가 긍정적인 기능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고라는 정보 교환과 토론의 장인 동시에 뜬소문을 퍼뜨리거나 음모를 꾸미는 현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고라는 모든 도시국가에서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마디로 말해, 아고라는 지역주민의 학습을 위한 열린 학습공간이었으며, 토론의 장이었다. 아고라는 그리스 시민들의 지적인 자유로움을 보장해주는 공원이었고, 예배장소였으며 박물관이었고, 정치 집회장으로서의 배움터였다.

지식창조를 위한 학습의 일상화

문화라고 번역되는 컬처(Culture)라는 말은 원래 기른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사를 애그리컬처(Agriculture)라고 부르는데, 농사를 해보지 않고 남의 농사를 보기만 하면 농사는 필경 망치게된다. 농사는 직접 경작할 때 비로소 뜻하던 바의 수확을 거두게된다. 문화는 남의 것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여자 스스로 그 어떤 형식이던 해보거나 실행하는 일이다. 밤낮 듣기만 하거나 보기만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런 문화는 개인에게 욕과 비슷하다. 평생을 자기 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주자들의 연주를 보고 듣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전시회에 나가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그렇고, 남의 글이나 시를 읽고 감상하는 것도 아름다운 문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화적인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는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 문화의 전시성(展示性) 보다는 문화의 일상성이 더 중요하다. 남의 것을 밤낮 보기만 하라고 한다고 하거나, 남의 것을 밤낮 듣기만 하라고 한다면, 문화는 감상의 문화로 전락하게된다. 결국, 문화의 상징성은 개인이 문화를 어느 정도로 행동해 보느냐와 어떤 식으로 문화를 그의 삶에 일상적으로 연결시키느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 문화에 있어서는 보고 감상하는 행위보다 실제로 경험하는 행위가 보다 더 중요하기에, 문화의 일상성을 폐기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문화를 박제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문화라는 말은 제 아무리 거대한 문화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인 삶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집안 한 구석에 놓여있는 ‘요강’ 만큼의 문화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단순한 고철덩어리이거나 석조물일 뿐이다.

학습자들은 천성적으로 문화수행능력자들이다. 그들은 매일같이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동시에 그것을 분해하며 학습한다. 그래서 문화교육과 학습을 관련시켜 말할 때, 그 문화는 인간의 생존현장 각 부문에 스며들어, 삶을 만들어내는 삶의 과정 하나 하나를 짜들어가며 동시에 그 속에 묻어있는 삶의 색깔인 동시에, 삶의 흐름 같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꾸는 것과 같다. 문화를 만들어내며 동시에 학습하는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물의 한 부품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같이 만들어내며 새롭게 구성해나가는 일상적인 삶들이다.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실제로 해보기를 금지한 학습은 학습일 리가 없다. 실천이 거세된 교육은 학습의 포기이며 사고의 폐기이다. 일상적인 삶 살이 바로 그 곁에 있는 학습은 그 어떤 기술적인 하드웨어이거나, 학교같이 커다란 조형물 같은 것이 아니다. 학습이란 비오는 오후 그 어느 날 관객을 기다리는 최고급 연주회 예약 석 자리가 어디인지 그 좌석의 글씨를 알아보는 능력 같은 것도 아니며, 매일같이 그 자리에 서서 매연이나 마시고 있는 남대문처럼 그 어느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어서도 곤란하다. 학습이란 우리 일상생활의 형상과 모습들이며 개인의 삶에 붙어 다니는 운명 같은 것이다. 우리 보통사람들의 느낌이나 반응, 혹은 그저 평범한 상식적인 이해들이 얽히고 설키어서 만들어내는 삶 살이 같은 것들이다. 바로 그래서 대문을 나설 때마다 우리는 익힘의 한 부분을 디디며 그것과 호흡하는 느낌이 들어야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학습일수록 우리 인간을 학습하는 동물로 확인 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과 직결된 학습의 일상생활 속에 살고있는 학습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생각하기의 일상성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때라도 변화한다. 자극적인 주변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바뀐다. 생각이 바뀌고 생각 때문에 삶이 바뀌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속도와 내용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외부의 자극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습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런 학습에는 최소한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유형은 촉각형 학습유형이다. 이들을 선호하는 학습들은 움직이거나, 경험하거나, 실험을 통한 학습이 진행될 때, 무엇인가 만지면서 느낄 때 그들의 학습효과도 극대화된다.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유형은 시각형 학습반응형태인데, 이런 학습을 선호하는 사람은 학습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것을 보고 느낌으로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 학습자들은 읽기 학습에 익숙한 ‘인쇄물 지향형’에 속하기도 하다. 이것은 그 동안의 인류문화가 보다 인쇄문화로 발전해온 부산물이다. 마지막 학습유형은 청각형 학습으로서 소리나 음을 통해 학습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유형이다.

성인들은 아동들과는 달리 시각형 학습에 익숙하며 그런 것을 즐기는 학습자들이다. 이에 반해 아동들이나 초·중학교 학생들은 움직이면서 학습하는 촉각형 학습을 선호한다. 성인과 아동간에 학습유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가지 유형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결합하여 그들의 학습을 촉진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학습유형을 어는 정도로 연결하느냐가 바로 인간의 두뇌기능이다. 각종의 학습기능이 제때에 제대로 연결될 때 학습자들은 보다 빨리 학습 할 수 있다. 두뇌의 능력 중 학습을 조력하는 특성은 바로, 1) 정보를 빨리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촉진하거나,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촉진하거나, 혹은 3)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거나 그것을 궁리해내는 방법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1) 일상생활을 위한 생각의 학습방법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는 해도, 사람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내며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궁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단서들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학습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궁리하기의 단서를 알렉스 오스본은 브레인스터밍 기법이라고 부른바 있다. 그런 기법을 다시 밥 에벨레는 다시 “스캠퍼(Scamper)”라고 명명되는 기억술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편하게 정리했다. 그 원리는 간단하게 “?”“으로 시작한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인가 꼬여들어 갈 때, 해법이 발 나오지 않을 때, 그 뒤에 의문부호를 달아 놓으면, 인간 두뇌 속의 신경세포는 답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인다. 마치, 이번 문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 볼 수 있는가??로부터 한번 정반대로 해 보면 어떻게 할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답을 찾아 신경세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S = 대체할 수 있는가(Substitute)?

C = 결합할 수 있는가(Combine)?

A = 채택할 수 있는가(Adapt)?

■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M = 수정할 수 있는가(Modify?)/ 혹은 확대할 수 있는가(Magnify)?

P =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가(Put to other uses)?

E = 없애거나 줄일 수 없는가(Eliminate or reduce)?

R = 반대로 할 수 있는가(Reverse)?

/혹은 재배열 할 수 있는가(Rearrange)?

평생학습의 성격과 속성

원래, 학습하기를 즐기는 학습인들로 구성되는 평생학습사회는 “자기주도학습방법”을 능동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공동체이다. 자기의 학습가능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쓰임새가 있도록 드러내는 학습력이 충만한 사회가 바로 평생학습 공동체이다. 그래서 평생학습사회는 학습방법을 아는 학습자들이 매일같이 그들의 삶 살이를 개조해나가게 도와주는 학습공동체가 되어야한다. 말하자면 단편적인 정보덩어리를 습득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직면하게되는 각가지 문제사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을 아는 사람들의 사회가 바로 평생학습사회이다. 이런 평생학습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학습이라는 개념이나 그 학습활동자체가 이미 다섯 가지 전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1) 전제1: 학습은 삶이다.

학습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쓰임새의 정도이다. 개인의 뇌에 전달되는 정보가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와 닿으며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하느냐 하는 문제가 학습의 생명력을 결정한다. 다시 인터넷을 예로 들면, 성인학습자가 인터넷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학습자가 인터넷을 자기의 실생활에 연결시켜 그것의 활용으로부터 일정한 쓰임새와 효능 감을 갖게되었을 때⁹⁾ 비로소 인터넷에 대한 학습의 생명력은 지속된다. 학교에서 수많은 공식을 배우고 익혔지만, 그런 정보들 중에서 쓰임새가 약한 것은 곧 사라진다. 반면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일상생활에서 그 쓰임새와 활용의 심장성을 높이는 학습의 생명력은 오래간다. 말하자면 초등학교시절에 강제로 외운 몇 마디 시조는 곧 잊어버려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신의 이름을 쓴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이다. 바로 학습자의 뇌신경에 입력된 이름 쓰기의 정보가 다른 그 어느 정보보다도 학습자에게 의미 심장성을 심각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학습의 생명이 오래가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의 용불용설”(學習 用不用說)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습자의 머리 속에서 입력된 정보나 지식이 그 용도를 확정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학습은 결국 그 쓰임새를 상실하게 된다.

2) 전제2: 학습은 그 어디에서 든, 그 언제 든, 그 무엇이 든, 그 어떻게 든, 그 누구에 든 일어난다.¹⁰⁾

3) 전제3: 학습은 그 누구나 성취하는 것이다.

4) 전제4: 학습은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5) 전제5: 학습은 신경세포의 작용이다

두뇌는 정보 메시지를 신경세포에게 전달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두뇌 안에서 신경세포끼리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부터 배움은 일어난다.¹¹⁾ 전달되는 각 메시지는 우리의 몸에서 ‘전기적’ 또는 ‘화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양한 형태로 전환된다. 각 메시지는 두뇌세포의 축색돌기를 따라 전기와 같이 돌아다니다가 연결점을 가로질러 다른 세포로 넘어갈 때 화학적 흐름으로 바뀐다. 이것을 시냅스(synapse) 혹은 연결부라고 부른다. 이러한 신경세포 간의 연결부와 그 결합은 두뇌기능의 또 다른 핵심이다.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는 1천억 개의 활동적인 두뇌세포들은 각 세포마다 다시 수천 개의 기억 돌기를 갖고 있는데, 이 기억돌기는 외부의 각종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와 같다. 외부로 통해 입력된 정보는 미세한 전기충격으로 만들어져, 신경세포의 축색이란 통로를 따라 다른 신경세포와 이어지면서 몸의 다른 부분에 동시에 전달한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그정보가 신경세포의 기억돌기에 저장되면서 동시에 손으로 꽃을 잡으면서 코로 꽃의 향기를 맡아보려고 접근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예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연결부(synapse)에 도달하면, 그 당시까지 전기충격으로 전환된 정보는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두뇌는 우선 전기를 발생시켜야만 한다. 두뇌는 약25와트의 전력을 발생시킨다. 25와트는 가정용 최소형 전구에 필요한 전력이지만, 신경세포가 손상 받지 않는다. 이렇게 두뇌에 필요한 전력은 산소와 결합된 음식에서 나온다.¹²⁾ 또한 호흡을 통해 산소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기 전이나 학습하는 동안에 심호흡을 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야한다. 운동은 몸에는 물론 두뇌에도 좋다. 운동은 혈액에 산소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산소 공급을 중단하면 두뇌세포는 파괴된다. 산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면 사람은 죽는다. 생각이 정지되고 학습도 죽어버린다.

1) 평생학습을 시민들의 평생고용문제나 인력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과제로 제한시켜 평생학습의 가능성을 넓혀보려는 노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개발기구(OECD)들의 주요관심사들이다. 평생학습을 평생고용촉진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자(참고: Bahnall, R. G.(2000). Lifelong learning and the limitations of economic determinism. International Journal

■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of Lifelong Education. 19(1). 20-36), 이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생 교육을 보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가능성의 사회실현에 그 초점을 맞추려는 유네스코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생학습문제를 제한시키려는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OECD 교육관계자들은 2000년 4월, 21세기 새로운 평생학습의 과제에 관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범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논의한 바 있다(참고: Joint meeting on lifelong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The changing roles of educational personnel available from <http://www.ilo.org/>).

- 2) 참고: 황금중(2000). 朱子の工夫論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황금중은 주자의 공부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 한다. “주자에게서 삶의 모든 상황과 계기들은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실현은 여타의 다른 사람이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성취해 가야 하는 과제이다. 주자가 그르침이 아닌 배움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본성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본성 실현이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타인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 완성의 교육적 책임을 지는 것도 爲己之學의 과제에 속한다”.
- 3) 학습의 영어표현인 “learning”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의 “Ieis”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은 원래 밭의 고랑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배운다는 말은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학습은 인간이 평생 무엇인가를 따라가며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양에서는 학습을 새의 날개짓과 같이, 무엇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참고: 한준상(1999). 호모 에루디티오. 서울: 학지사; 권두승(2000). 성인학습지도방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4) 학교중심의 교육패권주의는 상당할 정도로 약화되어 학교형태의 교육은 점차로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신문보도에 의하면(참고: 동아일보, 2000년6월12일), 영국 전기공학연구소는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혁명은 앞으로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쯤에는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형태의 학교는 사라지고 학생들이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주장한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학습자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대신 게임기와 비슷한 휴대용 학습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도 컴퓨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매일 집에서 먼 학교까지 이동할 필요도 없고,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학생도 동생 또래 동급생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보고서는 “학교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공공건물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조직체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방식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의 역할이 새로워 질 수밖에 없다. 자녀들이 공부하기 좋은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방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부터 먼저 훈련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제언이었다.
- 5) 참고: 문화일보, 2000, 11.15; 결국, 이 자료는 “명문대 입학은 개인의 노력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를 취재한 문화일보 권선무 기자는 “서울대를 핵으로 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지역·계층·직업집단 사이에 극심한 불평등을 보이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고하고 있다. 즉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를 대표하는 직업으로 분류한 아버지의 직종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 압도적으로 상위에 있고, 계층귀속의식이 월등히 위쪽에 놓여 있으며, 출신지역의 경우 서울이 훨씬 높았다. 구체적으로 ▲생산직 노동자가 자녀를 서울대에

보낼 가능성이 고급 관리직 종사자의 1/30에 불과하고 ▲서울대 신입생중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국평균의 1/16도 안되며 ▲중소도시나 읍·면 출신자가 서울대로 진학하는 경우는 서울지역 출신자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한 '계층이동의 수단'이 '사회적 불이익집단'에게 실질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분포 ▲출신지역 ▲계층의식을 각각 전국 평균과 각기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직업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신입생들에게 조사한 아버지의 직업(돌아가신 경우 생전의 주된 직업)은 전문직이 23.2%를 차지했다. 서울대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중 전문직의 비중은 ▲최상위 인기학과인 의예과의 경우 35.8% ▲입시 레슨비로 아파트 몇 채값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음대의 경우 34.8%를 나타내 우리나라 남성 경제활동인구중 이 직종의 비율(5.5%)보다 6~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직업중 26.6%로 집계된 고급 관리직은 단과대 별로 ▲수의대(35.7%) ▲경영대(35.0%) ▲의예과(34.9%) ▲약대(31.0%)등 전통적인 인기학과과 ▲음대(38.4%) ▲미대(34.9%) 등 예능계 학과에서 특히 두드러져 우리나라 남성 경제활동 인구중 이 직종의 비율(3.6%)와 비교해 최고 1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예과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이 고급 관리직일 가능성은 우리나라 전체의 직업인구비율에 비해 ▲생산직 노동자일 확률보다 58배, 농어민일 확률보다는 50배가 높았다. 의예과 신입생의 아버지가 판매·서비스직인 경우는 8.2%로 남성 경제활동 인구중 이 직종 전국비율(14.8%)의 1/2을, 하급 사무직인 비율은 8.3%로 이 직종의 전국비율(21.1%)의 1/3을 각각 다소 상회했다.

■ 계층의식 역시 다음처럼 고착되고있다: 200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에게 '스스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물은 결과 ▲상류 0.5% ▲중상류 16.5% ▲중류 59.3% ▲중하류 20.5% ▲하류 2.7%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이 조사한 전 국민의 계층의식은 ▲상류 1.1% ▲중류 54.9% ▲하류 44.0%로 집계됐다. 통계청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 서울대 신입생의 중상류·중류·중하류를 중류로 묶어보면 최고명문대학생들의 하류층 귀속의식은 전국 평균의 1/16에도 못미쳤다. 상류와 중상류층을 더한 비율이 높은 단과대는 ▲음대(42.9%) ▲의예과(31.6%)로, 서울대 이들계층 전체평균의 두배 안팎을 나타냈다. 스스로를 5급간의 중류라고 답한 비율은 ▲수의대(66.7%) ▲치의예과(65.8%) ▲약대(64.9%) 순이었다.

■ 출신지역=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지역(주성장지역)은 서울지역이 45.2%를 차지해 교육부 교육통계연보에 따른 2000년 전국 고교졸업자중 이 지역의 비율(22.9%)을 2배 가까이 웃돌았다. 특히 의예과 신입생의 서울지역 출신자 비율(63.1%)는 전국 평균의 2.8배를 나타냈다. 수의대와 치의예과는 각각 60.0%·51.3%, 음대와 미대는 각각 78.9%·73.4%의 서울지역 출신 비율을 보였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읍·면 출신자는 23.2%에 불과해 이들 지역의 전국 고교졸업생 비율(48.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예과·치의예과·수의대·약대·음대·미대에서는 읍 출신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예과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 이하의 출신자 비율은 전 학과를 통틀어 가장 낮은 11.0%로, 전국 평균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 출신자는 평균 31.0%로 대부분의 학과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음대(10.6%)와 미대(13.8%)에서는 크게 낮았다. 이 지역 출신 서울대생의 비율은 전체 졸업비율(28.5%)과 2.5%p의 차이만을 나타냈다.

- 6) 참고: 한준상(2000). Lifelong education. 서울:학지사.
- 7) 참고: 박우찬(2000). 머리로 보는 그림, 가슴으로 느끼는 그림. 서울:재원.
- 8) 안드라고지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포데키

■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 학습인간과 학습사회 건설의 과제

(Podechi)와 같은 입장을 갖고있는 학자들은 안드라고지가 페даго지(Pedagogy)와 이론적으로 다를 것도 없는 단순한 전제들로 가득찬 단순한 가설 같은 것(참고: Podechi, R.(1987). *Andragogy: Proofs or premise?*. *Lifelong Learning*. 11(3). 14-16)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다. 안드라고지에 대한 오해는 이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안드라고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미국 성인교육학계에 소개함으로써 안드라고지를 성인학습학으로 발전시켜버린 말콤 노올즈(Knowles) 자신도 안드라고지에 대한 교육사적이며 문명사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한손(Hanson) 같은 학자는, 안드라고지는 성인을 위한 교육이론이고, 페даго지는 아동을 위한 교육이론이라는 인간의 연령·성장단계를 중심으로 각각을 서로 갈라 대비시키는 이해를 거부하고, 페даго지와 안드라고지간의 사상적인 차이는 1)학습의 문화(culture)가 무엇이어야 하며, 2)학습의 맥락(context)이 어떻게 되어야 하며, 3)학습의 주도권(power)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참고: Hanson, A.(1996). *The search for a separate theory of adult learning: Does anyone really need andragogy?*. Edwards R. et al.(eds.). In *Boundaries of adult learning*. New York: Routledge). 안드라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론적인 확장은 새로운 시대에서의 안드라고지가 차지해야 될 위상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안드라고지의 원천과 배경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학적인 이해부터 먼저 시도했어야만 했다(참고: 한준상(근간). 안드라고지: 개혁교육학의 가능성).

- 9) 참고: Quigley, B. A. and Kuhne, G. W.(eds.)(1997). *Creating practical knowledge through action research: Posing problems, solving problems, and improving daily practice*.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73(Spring).
- 10) 성인에게 가장 강력한 학습매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영상매체이며 그 중에서도 TV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인들은 TV를 단순히 시간죽이기 용으로 쓰고 있다. 영상매체를 어떻게 학습매체로 활용할 것인가는 성인학습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TV 시청시간은 주중 3시간13분, 토요일 3시간54분, 일요일 4시간23분 정도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성인들이 하루에 독서를 한다거나 스스로 공부를 하기위해 활용하는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못한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 미디어코리아가 1999년 11월1일부터 1년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개 도시의 1000가구, 4000명의 TV시청 행태를 피플미터기를 통해 매일 1분단위까지 조사한 결과, 성별 연령대별 TV 시청시간을 보면 하루 평균 7시간15분 시청하는 65~69세 남성노인들의 시청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시청시간은 2위를 차지한 60~64세 여성노인의 6시간12분에 비해 1시간이나 많다. 하지만 연령이 높은 여성들의 시청률도 만만치 않아 2위~4위까지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차지했다. 반면 TV 시청시간이 가장 적은 연령층은 하루 평균 1시간38분을 기록한 20~24세의 남성들. 또 10대 후반과 20대 후반 남성들도 시청시간이 적은 2, 3위를 차지해 젊은 남성들이 TV를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34세의 여성들의 시청시간(5시간2분)은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나 주부시청자의 TV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시청자들은 각종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인 주중 밤 10시~11시대에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5~44세 여성들의 시청시간이 일요일보다 토요일에 많이 몰려있다는 점. 이는 가족들이 모여 TV를 시청하는 일요일에는 주부들이 가족 뒷수발 때문에 오히려 TV를 적게 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들은 소일거리가 없어 TV 시청시간이 긴데 비해 10대 청소년층은 입시 공부, 20대 남성들은 사회생활이 바쁘거나 인터넷 등 다양한 여가생활이 가능해 시청시간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참고:조선일보, 2000, 11월 9일)
- 11) 이런 정보는 인간의 청각/시각등을 통해 두뇌의 신경세포에 전달된다.그래서, 스탠포

드 대학의 로버트 온스타인 교수는, “인간의 경우, 출생 후 약6년 동안이 두 눈의 관찰 범위를 정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단언한다. 원숭이의 경우에는 6개월, 고양이 경우에는 3개월이다. 그때는 매우 민감한 시기다. 단 하루라도 새끼 고양이의 한쪽 눈을 가리면 커서도 그 눈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이것은 청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안쪽귀는 땅콩 크기만 하지만 도시의 전화 시스템처럼 많은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귀는 ‘달팽이관’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작고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을 달팽이 껍질처럼 생겼는데 피아노의 키보드 같은 역할을 한다. 피아노는 단지 88개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달팽이관은 2만개의 머리카락같은 섬세하고 민감한 세포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소리의 자극을 분별하고 두뇌에 전달한다.이 모든 복잡한 청각 구조는 언어를 학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력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언어 통로는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결정된다.

12) 이런 전기충격과 화학반응을 이끄는 신경세포의 전체 의사소통 시스템은 글리아 세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동시에 수 많은 신경세포를 덮고있는 “미엘린”이라는 덮개는 마치 절연체의 역할을 담당한다. 절연이 잘 될수록,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두뇌는 적어도 70개의 다른 형태의 신경전달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신경전달체가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 인간의 두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성인 두뇌의 무게는 전체 몸무게의 2퍼센트에 지나지 않지만, 두뇌는 놀랍게도 신체 에너지의 20퍼센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열량 음식을 섭취하면 그의 두뇌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두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 인간의 두뇌는 재빠르게 작동한다 두뇌는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우리 식단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신선한 과일와 채소는 포도당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 바나나, 오렌지, 살구, 아보카도, 메론, 복숭아, 배, 그리고, 감자, 토마토, 호박같은 야채에는 카륨이 많다.그래서 뇌를 잘 이용하여 효율적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키우기 위해서는 1)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다. 칼륨 섭취를 위해 바나나 반 개를 먹는다. 그리고 비타민C섭취를 위해 오렌지나 키위, 신선한 제철 과일들을 먹는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한다. 2) 신선한 야채 샐러드를 곁들인 점심을 먹는다.3) 생선, 견과류,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다. 생선과 식물성 기름은 두뇌의 수십억개의 글리아 세포에 영양분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과류와 식물성 기름은 리놀레산을 제공하고 두뇌는 리놀레산의 도움을 받아 정보 전달통로 주변의 미엘린 절연물질을 수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